

[비상]민주노총 '총파업 단행'

8 노동과세계 | © 승인 2008.06.26 12:29

26일 관보게재 동시 총파업, 냉동창고 14곳 미국산 쇠고기운송저지투쟁 나서

민주노총이 26일 미국산 쇠고기 관보게재와 동시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산하 16개 산별연맹과 전국 16개 지역본부는 촛불집회에 집중하면서 총파업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시에 26일 오전 9시 관보게재 시점에 맞춰 냉동창고 17곳 미국산 쇠고기운송저지투쟁에 나섰다. 운송저지투쟁은 27일에도 이어지며 민주노총 위원장 명령이 있을 때까지 계속된다.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은 미국과의 굴욕적 추가협상 구걸행위로 국민을 기만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해 국민 뜻을 짓밟은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기 위한 본격적 행동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첫날인 26일 각 냉동창고에 출하대기 중인 미국산 쇠고기 운송저지 투쟁과 함께 잔업거부, 총회 등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 건강권 쟁취투쟁에 나섰다.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된 냉동창고는 경기도 12곳, 인천 1곳, 부산 4곳(감만,감천,용당,양산) 등 총 17곳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은 경기지역은 충청권 이상, 인천지역은 인천본부, 부산지역은 영남권 지역본부가 총력결합해 운송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지침 1호에 따라 일제히 일손을 멈추고 이명박 정부 민중말살책동에 저항하고 있다. 26일 오후 5시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매일 저녁 7시 촛불집회에 참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 뜻을 외면하고 독선을 고집할 경우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 수위를 점차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표시작]<정부의 관보 게재에 맞선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 1호>

1. 민주노총은 “국민건강권 쟁취”를 위해 관보 게시와 동시에 총파업에 돌입한다.
 2. 총파업 돌입은 긴박한 상황을 감안하여 즉각적 파업 돌입이 가능한 사업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한다. 우선, 26일(목) 화물연대의 미국산 쇠고기 수송 거부를 비롯해 건설노조, 민주연합노조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고, 보건, 택시 등 1만명 규모의 간부상경 투쟁을 전개한다.
 3. 민주노총은 26일(목) 17시,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국민건강권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수도권은 시청 앞, 지역은 해당지역 촛불 장소)
 4. 미국산 쇠고기의 냉동창고 출하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감시단과 함께 26일(목) 오전 9시부터 운송저지 투쟁을 전개한다.
 5. 민주노총은 총파업 돌입과 함께 27일(금) 18시, 28일(토) 17시 29일(일) 17시, 전국동시다발 민주노총 집회를 진행한 후 촛불집회에 총력 결합한다.
 6. 총파업에 따른 세부 전술은 총연맹 위원장 지침에 따른다.[표끝]
- 한편 민주노총 산하 가맹조직들도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각종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를 저지하기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이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 철도민영화 계획 완전 철회를 위한 총투표'를 실시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방침을 힘차게 가결했다. 민주노총 철도노조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전국에서 진행된 총회(총투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조합원 압도적 찬성으로 결정했다. 철도노조는 26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구체적 투쟁방법을 논의 확정한다.

보건의료노조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의료영리화 저지! 2008 산별투쟁 승리! 보건의료노조 간부·대의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 전국 간부·대의원 3천여 명은 26일 장충체육관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거리행진을 벌여 촛불 집회에 결합한다.

보건의료노조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병원급식 반대운동 일환으로 환자보호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24일에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불사용을 선언한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을 발표한 바 있다.

제2의 광우병이라 불리는 이명박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서도 보건의료노조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제주도로부터 시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건강연대와 함께 정부종합청사 앞 1인 시위를 비롯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전국운수노조 민주택시본부는 'LPG값 폭등 규탄, 생존권 쟁취, 택시노동자 결의대회'를 택시노동자 2천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26일 오후 3시 청계광장에서 개최한다. 택시본부는 이날 대회에서 LPG값 인하,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택시살리기종합대책을 촉구하고 LPG 인상 강행 시 7월2일 민주노총 총파업투쟁과 동시에 개인·법인택시 전국 30만 택시가족과 함께 대규모 집회와 택시운행 중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공무원노조는 28일 오후 2시 대학로에서 1만여 공무원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총력결의대회를 갖는다.

민주노총이 이명박 정권을 상대로 국민주권과 건강권을 되찾고 서민 삶을 구하기 위한 총파업 총력전을 시작했다. 네티즌들도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에 가세해 국민총파업을 벌여보자며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kctu@nodong.org